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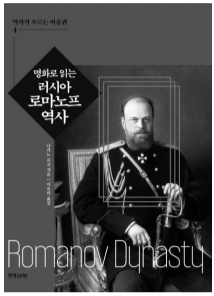
한눈에 보는 400년 왕조의 흥망성쇠

명화로 읽는 러시아 로마노프 역사

나카노 교코 지음, 이유라 옮김

“명화를 통해 러시아 로마노프 왕가 300년의 흥망성쇠를 읽는다.”

11명의 인부들이 몸에 밧줄을 감고 배 한척을 끌고 있다. 얼굴과 옷차림 모두 짐이 더욱 힘겨워 보인다. 이미 증기선의 시대가 왔지만 러시아 선주들은 여전히 인력으로 배를 하류에서 상류로 끌어올렸다. 증기기관대신 농부나 도망 노예를 쓰는 편이 더 경제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시 속담에 ‘말에게는 멍에, 배 끌기에는 밧줄’이라고 할 정도였다. 1870-1873년 일리아 레핀이 유화로 그린 ‘볼가 강의 배 끄는 인부들’ 작품에는 러시아 혁명 전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의 고달픈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19세기 러시아 민중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린 일리아 레핀의 ‘볼가 강의 배 끄는 인부들’. <구글 아트 프로젝트 제공>

으로 다음 차르(러시아 황제)가 될 같은 이름의 27살 아들을 지팡이로 때려죽이고 만다. 이후 지나간 권력다툼 끝에 1613년 7월 미하일 로마노프가 차르 자리에 오르게 된다.

19세기 러시아에서 ‘차르는 태양이고, 나머지는 어둠’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노프 왕조의 권위는 막강했다. 저자는 표트르 대제와 엘리자베타 여제, 타라가노바 황녀, 예카테리나 2세, 모로조바(귀족 부인), 라스푸틴 등 로마노프 왕가를 대표하는 인물과 역사적 사건 주인공을 소재로 한 명화를 통해 독자들에게 생소한 로마노프 왕가와 러시아 역사를 들려준다. 그중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후 12차례 채찍질을 당하고, 시베리아로 추방된 ‘우글리치 교회 중’ 이야기가 흥미롭다. 미하일 로마노프 등극 전 실권자였던 보리스 고두노프가 사람처럼 똑같이 ‘가짜정보를 전했다’는 이유로 교회 중을 처벌한 것이다.

300여년 러시아를 통치한 로마노프 왕가의 마지막

차르는 니콜라이 2세이다. 그는 22살 황태자 시절 일본을 방문했다가 비와 호수 인근마을 오쓰에서 테러를 당했다. 범인은 경찰이었었는데 ‘오쓰 사건’으로 불린다. 이 때문에 황제는 일본을 미워해 러일전쟁을 일으켰다는 설도 있다. 일본화가 그린 ‘쓰시마 해전’ 등 러일전쟁 관련 그림은 당시 전투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책에 실린 로마노프 왕가의 황제를 그린 인물화와 ‘안나 여제의 광대들’, ‘이단 사제의 처형’ 등 역사적 사건을 그린 기록화가 현재의 사진처럼 글에 생동감을 안겨준다. 1812년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은 ‘아우스터리츠 전투’ (프랑스어 제라르 작)와 ‘틸지트에서의 나폴레옹 1세와 프로이센의 루이제 왕비의 접견’ (니콜라 고스 작) 그림을 통해 설명한다. 저자는 ‘함스부르크나 부르봉과는 상당히 다른 분위기의 로마노프 왕조 흥망사를,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러시아의 명화와 함께 즐겨 주었으면 한다’고 말한다. <한경arte·1만6000원>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지금부터 다르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미국 최고의 노인정신의학 전문가의 마크 아그로닌 박사의 건강하고 희망적인 노년에 대한 안내서다. 2018년 출간된 ‘노인은 없다’의 특별 리커버판이기도 하다. 나이를 자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속해서 성장하고자 하는 사람만이 노년에 잠재되어 있는 엄청난 능력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한즈미디어·1만8000원>



▲나의 작은 철학=사회철학자 장준익이 일상의 틈을 우아하게 건너는 법을 알려주는 인문 에세이.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고민에 부딪힌다. 선택의 순간마다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내가 만나는 세상이 결정되는데 그 모든 순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나의 철학’이다. 책에서 이야기하는 철학은 내가 직면한 고민들을 어떻게 다룰지에 관한 생각 레시피다. <곰출판·1만6800원>

해부한다. <내일이여는책·1만4800원>

▲역경이 새대기를 날려도 나는 씨익 웃는다=아간혈색소노증이라는 희귀 질환, 동생의 조현병, 부모의 이혼, 아버지의 치매·파킨슨 병과 죽음... 인생에서 가장 꽃피워야 할 이상심대에 감당하기 힘든 역경을 보내야 했지만 유쾌하게 뛰어넘는 흡수저 청년의 분투기. 여러 시련 속에서도 인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야를 갖게 된 저자의 이야기는 우리 마음을 위로한다. <카리스·1만6800원>

▲원자력 X파일=이정운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가 원자력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 책.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30년간 몸담았던 원전 현장을 떠나 원자력 안전 분야에 뛰어든 저자는 10여 년 전 잇단 비리로 국민적 불신과 ‘원전마피아’라는 오명을 자초했던 원자력계의 견고한 공생관계 등을 낱알이

어린이·청소년 책



▲상징에서 꺼낸 이야기=1968년에 태어나 강릉에서 초중고 시절을 보내며 1980년대를 경험한 저자가 오랫동안 간직해 두었던 자신의 소년일기를 세상에 펼쳐내 보인다. 저자 유지우는 당시 소년의 눈으로 본 세상이 오늘의 누군가에게는 공감과 나름의 의미를 줄지 모른다는 생각을 글에 쓰게 됐다. 저자는 그때가 좋았거나 힘들었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런 일이 있었다’고 알리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한다. <지성사·1만7000원>

이 알 수 있다. ‘바이킹은 오줌으로 불을 피웠다고?’, ‘바이킹은 자를 대고 글씨를 썼을까?’ 등 12개의 질문을 통해 바이킹에 대한 역사적 흐름부터 소소한 일상생활까지 두루 알아본다. <풀빛·1만3000원>

▲토르가 바이킹의 신이라고?=바이킹 시대와 바이킹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책. 엉뚱한 질문 하나로 바이킹 시대를 깊

▲욕쟁이 아빠=욕하는 게 습관이 되어 버려서 화가 나면 절로 욕이 튀어나오는 아정이. 반성문도 여러번 썼지만 고치는 게 쉽지 않다. 길에서 우연히 주운 신문 조각을 보고 자신이 욕을 잘하는 이유가 바로 아빠의 욕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아정은 아빠의 욕 유전자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한다. <잇츠북어린이·1만2000원>

예술을 미치도록 사랑했던 베를린 예술학도 율리와 미아

나의 미치광이 이웃

이소호 지음



기후와 식량 위기로 척박해진 근미래를 배경으로 생존조차 담보할 수 없는 시대에 예술을 미치도록 사랑했던 베를린의 예술학도 율리와 미아. 학교 룸메이트인 두 사람은 서로가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갈망하며 끊임없이 휘청인다.

작가 이소호의 ‘나의 미치광이 이웃’은 예술을 치열하게 사랑했고 절박하게 탐닉했던 율리와 미아의 이야기를 담은 단편소설이다. 단편 소설이 한 권의 책으로 독자들에게 선보이는 건 매우 드문 일이다.

도서출판 위즈덤하우스는 여러 편의 단편소설을 한 데 묶는 방식이 아닌 ‘단 한 편’의 단편소설로 책을 구성하는 이례적인 시도를 단행한다. ‘위픽’ 시리즈를 통

해 매월 4종씩 1년 동안 50가지 이야기 축제를 펼치는 특별한 경험이다.

소설가 뿐만 아니라 논픽션 작가, 시인, 청소년문학 작가 등 다양한 작가들의 소설을 통해 장르와 경계를 허물며 이야기의 가능성을 넓혔다. 또한 소재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단 한편의 이야기’에 집중한다. 이를 통해 독자들에게 한 편 한 편을 깊게 호흡하는 경험을 선사한다는 의도다. 5월의 단편소설은 이소호의 ‘나의 미치광이 이웃’ 외에 오한기의 ‘나의 즐거운 욕아 일기’, 조예은의 ‘만조를 기다리며’, 도진기의 ‘애니’다.

‘나의 즐거운 욕아 일기’는 소설가인 ‘나’가 화자로 등장한다. 본업이 소설가인 나는 문벌이를 궁리하다가 아이피 진진에게 베이비시터로 고용될 결심을 한다. 소설은 자신의 아이의 베이비 시터로 셀프 고용된 소설가가 일감을 주는 고용주와 제 할 일을 대신해주는 심부름꾼 소년과 얽히며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을 다룬다.

‘만조를 기다리며’는 바다에 몸을 던져 자살했다는 소꿉친구 우영을 찾아 20년 만에 우영의 고향 미야도를

찾는 주인공 정해 이야기다. 산에 묻히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던 우영이 바다에 몸을 던졌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정해는 우영이 현신적으로 활동했던 사이버 종교 영산교 한복판으로 뛰어든다.

‘애니’는 혐치 변호사이자 소설가로 법정 소설과 치밀한 추리소설 시리즈를 써온 도진기 작가의 신작으로, 인간의 근원적 욕망이 첨단 AI 기술을 만나 폭발하는 사건을 다룬다. 취업 시험에 번번이 떨어지고 사랑에는 실패하고 삶에서 기쁨을 찾지 못했던 동한의 뇌에 AI를 이식해 원하는 대로 프로그래밍된 삶을 꿈꾸게 해주겠다는 금사원 박사. 성공을 미리 입력해둔 CEO 동한의 삶은 행복한 듯 싶지만 그렇게 만나게 된 완벽한 이상형 애니가 이상해지면서 그의 꿈속 인생은 뒤틀리기 시작한다.

각각의 책 속에는 소설 한 편 전체를 한 장의 포스터에 담은 부록 ‘한 장의 소설’도 함께 들어 있다.

<위즈덤하우스·각 권 1만30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